

2021년 3월 19일

가족 여러분께,

이번 주는 제가 뉴욕시 교육감으로 부임한 첫 주이며, 저는 이 직무를 맡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뉴욕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만이 아니라, 교육이 제 천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사였던 어머니와 숙모, 그리고 제가 퀸즈에서 성장하던 학창 시절 훌륭한 스승들의 영향으로 뉴욕시 공립학교 영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21년 전 DOE에서 첫 교편을 잡은 이후, 저는 교감, 교장직을 거쳤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수퍼인텐던트, 그리고 브롱스 이규제큐티브 수퍼인텐던트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는 뉴욕시 전체 학교를 이끌게 된 것을 명예이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감직을 시작한 이번 첫 주 동안, 뉴욕시 모든 보로에서 우리의 뛰어난 학생들과 교사들이 대면으로, 혹은 원격으로 열심히 수업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습니다. 저는 유아원 학생들이 물의 순환에 대해 배우는 것을 보았고, 정량의 식용 색소를 프로스팅에 혼합하는 과정을 통해 비율을 학습하는 6학년 학생들과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특별한 물건에 관해 대화하는 7학년 학생들의 수업에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닥친 모든 변화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공동체는 여전히 즐겁고 역동적인 학습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방문했던 곳들을 돌켜 보면서, 저는 우리 교실들과 공동체, 그리고 뉴욕시 전체의 다양성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들이 내 건 “모두를 위한 존중”이란 문구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 교직원,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환영 받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간 우리가 뉴욕시 전역에서 보았던, 그리고 금주 애틀랜타에서 목격한 끔찍한 아시아인 대상 증오범죄는 우리가 이러한 조직적 인종 차별에 얼마나 더 치열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교육자로서 제 커리어를 지탱하는 신념은 정의와 포괄성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교육감으로서, 공정성을 진일보 시키고 우리 학교 시스템에 남아있을 지도 모를 편견을 부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뉴욕시 교육청, 그리고 우리 학교들에는 그 어떤 종류의 인종차별이나 편견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모든 교사들에게 교내 증오범죄에 맞서고 학생들에게 사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가장 최신 자료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녀와 인종 차별이나 증오 범죄에 관한 대화를 할 때 도움이 될 자료들을 찾아 보십시오: schools.nyc.gov/togetherforjustice.

오는 3월 22일, 뉴욕시 모든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면 및 혼합 수업을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올 때,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학생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75학군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역시 그간 우리가 수렴해 놓은 학교 보건 및 안전 수칙을 철저히 따를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주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COVID-19 테스트, 물리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그리고 매일 야간 대청소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저는 우리 뉴욕시의 회복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고등학교 개방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재개방 노력에 있어 미국 전체의 좋은 본보기가 된 뉴욕시 학교 시스템을 이끌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지금은 우리 학교들과 뉴욕시에 매우 희망적이고 역사적 순간이며 저는 이것이 그동안 우리 학생과 학교들을 위한 여러분의 지원과 헌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만나 대화할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학년도를 마감하고 다음 학년도를 계획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함께 나아 갑시다. 함께 해냅시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샤 포터
뉴욕시 교육감